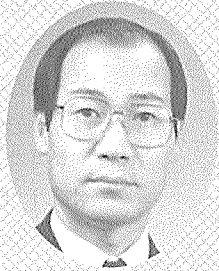


협회 나름대로의 역점 사업을



심윤수
〈통상산업부 석유수급과장〉

대 망의 정축년(丁丑年) 새해가 시작되었다.

소가 상징하는 성실함, 근면함 그리고 넉넉함 등이 우리 살림, 우리 경제에 고루고루 뿌리 내리는 한해였으면 한다.

그리하여 지난해 이후 아직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나가는데에 온 힘을 모아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금년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히,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석유협회는 업계와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주장을 관철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나라 기

간산업인 석유산업을 이끌어 나갈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몇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협회가 좀더 주도적인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

시시때때로 제기되는 회원사 자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제를 1개 회원사대 정부(또는 관련기관)의 문제로 내맡기지 말았으면 한다. 수출입, 가격, 정제, 유통, 수송 등 모든 문제의 내부종합화를 통한 대외적인 주도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협회도 나름대로의 역점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간의 사업도 나름대로 정례화되어 있고 의미를 갖고 있지만 회원사의 부담요인이 된다는 의미 때문인지 나름대로의 역점사업이나 개선사업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단순한 정례적인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매년 그 시점에서 필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나 토론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적인 정유사들의 움직임은 무엇이며 비산유국의 업계의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석유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과제는 무엇인지 등...

셋째, 협회도 이제는 창의, 발전적으로 변신을 시도했으면 한다. 석유업계에 대한 동향파악 수준이 아니라, 업계에 밀려오는 공통의 문제 제기 즉, 환경·안전, 경쟁력 약화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적인 정보 입수와 입장 정립으로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

환경·안전문제 및 최근 엔(低)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문제 등도 폭넓은 사전 연구와 협회 차원의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끝으로 종합적인 정보지로서 협회지를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정부와 정유, 가스업계, 학계, 연구소 그리고 인근 대리점이나 주유소업계 그리고 해외정보 등을 그때 그때마다 논점을 찾아 분석, 해설해 주는 석유 관련 종합정보 및 해결의 공동의 광장이 되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이 협회의 변모된 모습으로 하여 더욱 재도약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